

현금배당 30조… 전년비 10.5% ↑ 코스피 상장사 주주환원 기조 강화

KRX, 작년 807곳 중 565곳 실시
시가배당률 최근 5년 중 최고치
보통주 3.05%, 우선주 3.70% 기록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사의 현금 배당이 대폭 확대되며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총액이 30조원을 넘겼으며, 시가배당률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807개사 중 70%에 해당하는 565개사가 현금배당을 실시해 총 30조345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10.5%(2조8926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당 평균 배당금은 492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상승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3.05%, 우선주 3.70%를 기록하며 모두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통주의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수익률(3.17%)과의 격

차를 0.12%포인트로 좁혔다. 업종별 시가배당률은 금융업(3.80%)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업(3.61%), 통신업(3.49%)이 뒤를 이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주가는 평균 5.09% 하락했으나, 코스피 전체 수익률(-9.63%)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05개사 중 95.4%에 해당하는 100개사가 배당을 실시했고, 총 18조원을 배당해 전체 배당금의 59.2%를 차지했다고 집계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3.15%, 우선주 3.99%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40.95%로 전체 현금 배당 법인의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거래소는 “고금리, 환율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도 다수의 상장사가 기업이익의 주주 환원 및 안정적인 배당 정책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전체 배당법인에 비해 더 높은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배당금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중 612개사가 총 2조313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 기업 수는 전년 대비 5개사 증가했으며, 배당금 총액도 2603억원(12.7%)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코스닥 상장사도 402개사로 사상 최대다.

평균 시가배당률은 전년 대비 0.56%포인트 상승한 2.529%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한 기업은 전체의 28.8%(176개사)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5.45%에 이르렀다.

배당 실시 기업의 평균 주가는 -13.0%로, 코스닥지수 수익률(-21.7%)보다는 선방했다. 특히 5년 연속 배당을 지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은 27.6%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1.3%)을 26.3%포인트 초과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세 비껴가고 실적은 날개 ‘방산株 순항’

한화에어로, 전일비 2.29%↑ 78.8만원
코스피 하락에도 주요방산주 상승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 움직임에도 방산주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유럽·중동 중심의 수출 구조에 더해, 미국의 국방비 확대 기조가 실적과 주가, 투자심리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중가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20% 오른 7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장중 80만4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29.98포인트(-1.21%) 하락했지만 LG넥스원(+7.06%), 한국항공우주(+2.31%), 현대로템(+0.76%) 등 주요 방산주들은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낮고, 유럽·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어 미국발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이 재개되더라도 방산업체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실적 기대감도 방산기업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3% 늘어난 47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1866억원)과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도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 투자 시장에서도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 ETF’는 순자산 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연초 이후 수익률은 83.56%,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1.42%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미국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도 방산주의 중장기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조만간 1조 달러 실현”이라는 입장을 내놴다. 국방비 증액은 동맹국의 방위비 확대와도 맞물리며 국내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실적과 수출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신용평가사들도 방산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안정적’에서 ‘AA-/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천궁-II와 L-SAM 다기능레이다 수출 확대, ICT 부문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등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조선소 인수와 유상증자 등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순차입금비용·차입금의존도 등 주요 재무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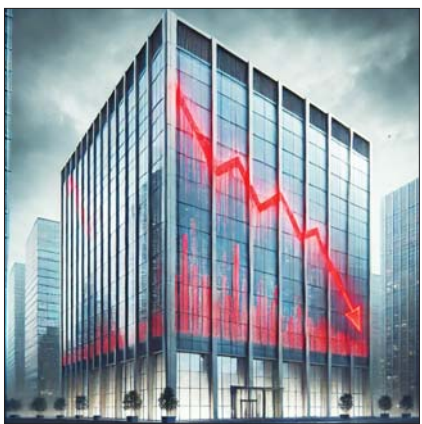
코스닥 밸류업 시행 1년… 참여율 2% 그쳐

KRX, 총 1791곳 중 37곳 참여
“밸류업, 손해 감수해야 하는데
보완 세제 없어 나서기 어려워”

밸류업 정책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상장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 정부 정책의 유인과 실행 여건이 모두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공시에 참여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7개사로 전체 코스닥 상장사 1791개사의 2.07%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참여가 부진한 배경에는 제도 자체의 한계와 기업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가 자본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주주 환원 방안을 수립해 공시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시장 특성상 IR 전담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아, 공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밸류업을 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할 세제나 정책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투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유인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소각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결국 돈을 버는 기업이 많아져야 밸류업도 가능

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대응 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1203곳의 합산 연결 영업이익은 9조6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고, 순이익은 3조4817억원으로 13.45% 줄었다. 상장사 5개사 중 2개사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자체가 더 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밸류업 정책의 출범 계기가 됐던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약 40%였으나, 올해 3월에는 53%까지 늘어나면서 저평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정부는 당초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법인세 세액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빠진 상황에서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투자, 마이스터 클럽 제도 등 신설

시니어 우수PB·지점장 대상

신한투자증권은 시니어 우수 프라이빗뱅크(PB) 및 지점장을 대상으로 ‘마이스터 클럽(Meister Club)’,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Meister Club’은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정이 되면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을 부여한다. 임금피크제 전환 대상인 시니어 PB 중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역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에

‘Meister Club’ 멤버는 전체 시니어 PB 25명 중 6명이 선정됐다. 연말 실적 업적평가대회에서 성과 상위 5% 이내 직원에게 수여하는 플래티넘 수상인원 3명이 포함됐다.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는 오랜 기간 쌓아온 지점 운영 노하우와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시니어 지점장을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카카오뱅크, 전략적 업무협약

비대면 자산관리 환경 확장 계획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자산관리 환경을 확장하고, 고객 중심의 투자경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키움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 ▲계좌 조회 및 주식·채권 등 다양한 투자 기능 제공 ▲카카오뱅크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연계된 투자 서비스 확장 등이다.

향후 공동마케팅, 투자교육 콘텐츠 개발, 고객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플랫폼인 ‘은행’과 투자의 핵심 채널인 ‘증권’ 간의 연결을 통해 금융 생활 전반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왼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키움증권

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기반의 투자 인프라와 풍부한 리테일 투자자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방대한 사용자 접점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환경·경험(UI·UX)과 플랫폼 역량을 활용해,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